

‘미세먼지 창궐’ 엄마들 결단... “자식 위해 맘충도 불사”

어린이집·유치원 등원 ‘자발적’ 거부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구입” 요구도 길거리 음식 거부...대책마련 집회 참여



“맘충 소리를 듣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내 아이가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두 아이의 어머니 이모(34)씨는 최근 첫째 아이의 어린이집 입학식에 갔다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미세먼지가 심해 고민 끝에 입학식에 참석했는데 어린이집에 그 흔한 공기청정기 한 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고민 끝에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로 어린이집 미세먼지를 측정해 본 후 원장에게 공기청정기 설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그는 “주변 엄마들이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달라고 하면 되지 굳이 정비까지 가져가서 어린이

집 미세먼지를 측정 해야겠느냐고 조언했지만 미세먼지가 재앙 수준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어쩔 수 없다며 “유난이다. 맘충 같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 아이가 다닐 어린이집인데 이 정도는 신경 써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어린 자녀들을 둔 엄마들이 자신의 아이를 ‘번지’로부터 지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어른들도 외출 후 눈이나 목 등에 통증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 아이들은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보니 벌어진 일이다.

◇최대한 외출 자제...어린이집·유치원도 안 보내

엄마들은 우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아이와의 외출을 자제한다. 아이가 답답해해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집 밖을 나서지 않는다.

아이가 아프거나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에 가야하는 경우에도 날짜를 미룬다. 관측 사상 최악의 초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린 5일 돌을 앞둔 한 아이의 엄마는 “예방접종은 접종일 보다 앞서서 맞으면 안되지만 조금 늦추는 것은 가능해 미뤘다”고 했다.

아이가 아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학부모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깊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워킹맘 황모(32)씨는 “일을 나가야 하니 미세먼지가 심해도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밖에 없다”면서 “미세먼지도 심한데 실외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실내 대기질은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마스크는 기본...유모차 전용 공기청정기도 등장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아동용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인터넷 맘카페에는 아이에게 어떤 마스크가 좋은지 정보를 공유하는 글이 하루에도 몇 건씩 올



라온다.

공기청정기는 아이가 있는 가정의 필수품이 될 지 오래다. 최근에는 한 대로는 부족하다며 공기청정기를 추가로 구입하려는 엄마들도 늘어나고 있다.

유모차를 타는 아이를 위한 휴대용 공기청정기도 등장했다.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 커버로는 미세먼지까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커버 안쪽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유모차용 공기청정기는 휴대가 가능해 차량에서도 사용된다.

출산을 앞둔 ‘예비맘’들은 출산 준비물 리스트에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도 올려놓았다. 한 예비엄마는 “온도계, 습도계 정도만 필요한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가정에서도 쉽게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도 출산 ‘필수품’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길거리 음식은 NO...집단행동 나서기도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일부 엄마들은 아이에게 길거리 음식은 사먹지 말라고 신신당부 하기도 한다. 음식이 외부공기에 잠시간 노출된다보면 미세먼지와 각종 유해물질이 묻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또 미세먼지로 인해 집안 환기가 어려워 지다보니 고기나 생선

을 굽는 조리방법은 자제하는 엄마들도 등장했다. 이윤러 기름을 이용하는 조리 방식이 좋지 않다는 말에 에어 프라이어를 구입하거나 가스레인을 전기레인지로 바꾸는 엄마들도 생겨났다.

한편 정부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엄마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세먼지의 공습 속에서 숨어만 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외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세먼지 해결을 요구하는 엄마들의 청원이 잇따르고 있고,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글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뉴스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율 96%...미세먼지 관리 총력



미세먼지 어린이집 1.5만여곳에 지원
경로당 5.4만곳 공기청정기 설치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잇따른 가운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머무르는 어린이집은 대부분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어린이집 3만9499곳 가운데 96.0%인 3만7923곳에서 공기청정기 12만3528대를 갖추고 있었다. 어린이집 한곳당 평균

3.26대씩 공기청정기를 둔 셈이다. 설치율은 유치원(97%)과 비슷한 수준이며 초등학교(75%), 특수학교(73.9%), 중학교(25.7%), 고등학교(26.3%) 등 교실들과 비교했을 땐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869곳)과 충북(1159곳)의 어린이집들은 100%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 부산(1899곳 중 1893곳), 전남(1437곳 중 1429곳), 전남(1215곳 중 1208곳), 경기(1만705곳 중 1만616곳), 대구(1420곳 중 1409곳) 등도 설치율이 99%를 넘었다.

서울은 6072개 어린이집 가운데 94.5%인 5739곳이 공기청정기를 가동 중이다. 세종시 71.2%(323곳 중 230곳), 제주 23.0%(512곳 중 118

곳) 등은 저조한 설치율을 기록했다.

복지부는 수요조사를 거쳐 추가 경쟁예산을 확보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에 나섰다.

미세먼지 어린이집은 물론 설치했더라도 보육실별로 추가 설치 수요가 있는 어린이집 1만4948곳에 국비 136억원을 들여 공기청정기 5만3479대 설치를 지원했다. 현재 복지부는 국비 지원 대상 어린이집과 자체설치 어린이집 등을 포함해 공기청정기 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 중이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외에도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 5만4000여곳에 국비 31.4억원(전체 예산의 4분의 1, 나머지 예산은 지방비)

을 지원해 올해 상반기까지 공기청정기를 확대 설치한다.

호흡기 심뇌혈관 등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건강영향와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인력,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복지상담팀 등을 활용해 미세먼지 대처요령도 교육하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초과사망 등 건강피해 유형과 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9월까지 미세먼지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내년부터 2024년까지 건강영향평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올리는 미세먼지 질병 유발 경로를 파악하고 치료기술 개발 등을 위해 13개 연구개발(R&D) 과제에 2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